

# 친구 지각에 관한 일 연구

##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화정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이 그들의 친구 관계를 얼마나 지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 총 259명으로, Berndt와 Perry (1986)의 조사 방법에 따라 본인이 구성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행해졌다. 질문지는 지지적 관계 (supportive relationships)를 재기 위한 것으로, 공유 활동,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신의, 애착/자존심 고양, 정보 등 6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처리는 6개 하위 변인 각각에 대한 평균 평정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3 \times 2 \times 2$  (학년별  $\times$  성별  $\times$  친구 유형별)의 요인 변량분석과 보충적으로 t-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친구 유형(친구, 지인)에 따른 평정에 있어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등 대상이 된 학년 모두에서 친구와 지인의 평정 점수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아동들이 그들의 실제 친구 관계에서도 가설적인 친구 관계에서의 기대와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함을 말해 준다. 2. 6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학년의 주효과와, 친구 유형과 학년 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 효과는 국민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학생에서보다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에서 더욱 뚜렷한 친구-지인 간의 구분을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다. 이 결과는 보충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3. 공유활동,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그리고 정보 변인의 경우 성에 따른 주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여학생들의 평정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과 친구 유형간의 상호작용은 신의와 애착 두 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서 친구와 지인 간의 구분을 더욱 뚜렷이하는 데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친구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들은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고, 행동수정을 쉽게 하며 동기적, 인지적 변화와 그 확장에 기여하는 등 서로 중요한 사회화의 매개자로서 기능한다 (Wahler, 1967; Hartup & Lougee, 1975; Allen, 1976). 장기 간의 종단적 연구들에서는 또한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청년기나 성인기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진단적

지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기에 또래들로부터의 수용 여부가 청년기의 비행, 정신건강 상태,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인지 발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Roff et al., 1972; Cowen et al., 1973; Furman, 1977; Hartup et al., 1967; Gottman et al., 1975; Keasey, 1971).

특히 친구는 또래들 중에서도 아동에게 의미있는

타자로서 기능한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또래들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것은 우정 관계로 정의된다(Perry & Bussey, 1984).

우정 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부모-자녀, 또는 부모간에 있는 것과 같은 애착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사회적 관계와는 다른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므로 친구들간의 행동은 다른 유형의 또래 관계와는 구별이 된다(Cabral et al., 1977; Doyle et al., 1980; Foot et al., 1977; Lewis et al., 1975; Masters & Furman, 1981; Newcomb et al., 1979).

한편 우정관계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아동이나 성인들 모두에게 지지적 기능(supportive function)을 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하여(Kessler et al., 1985) 사회적 지지의 여러 유형과 정신적 장애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배우자, 친구, 가족 등으로부터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즉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하여 보다 건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의 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Broadhead et al., 1983; Leavy, 1983; Mitchell et al., 1982). 그중에서도 믿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지각했을 때 사람들은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발견해 왔다(Heller & Swindle, 1983; Kessler et al., 1985; Turner, 1983).

우정 관계는 아동들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정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들이 갖고 있는 우정 관계의 개념과 그들이 친구에 대해 기대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들 연구들은 또한 우정관계의 개념, 기대 등이 발달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Bigelow & La Gaipa, 1975; Bigelow, 1977; J.Youniss, 1978; Reisman & Shorr, 1978;

Furman & Bierman, 1984; 고진경, 1987).

이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우정 관계 개념의 발달적 양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행동적인 특성에서 감정이입적이고 성향적 특성으로 변화해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친구와 지인 사이의 구분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분화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국내의 자료들에서도 일치되고 있다(이주옥, 1984; 박희숙, 1985).

이와 같이 우정관계의 개념, 기대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으나, 그 연구들의 대부분이 실제 자기의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친구에 대한 개념이나 기대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actual) 친한 친구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가설적인 친구 관계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자신의 실제 우정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찾아볼 수 있는데(Sharabany, Gershoni & Hofman, 1981; Berndt & Perry, 1986), 이들 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로 하여금 친구의 이름을 직접 쓰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정 관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나마도 성인들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친구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Garmezzy & Rutter, 1983; Berndt & Perry, 1986 등의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정 관계는 다른 또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수한 관계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실제(actual) 아동의 친구 관계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가설적인 친구 관계에 대한 연구였다는 점, 둘째, 우정 관계의 기능 중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능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실제 친구 관계에서 그들이 얼마나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다른 또래 관계(지인)와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위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은 그들의 친구를 얼마나 지지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가?

둘째, 친구 지각에 있어 학년차(연령차)는 나타나는가?

세째, 친구 지각에 있어 성차는 나타나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홍지동에 위치한 S 국민학교 3학년, 6학년, 그리고 서울 대현동에 있는 남녀 공학인 E 중학교 3학년에서 각 2학년씩에 질문지를 실시하여 그 피험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학생들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학생의 구성

	국3	국6	중3	전체
남	44	48	45	137
여	43	44	35	122
전체	87	92	80	259명

### 도구

본 연구는 Berndt 와 Perry (1986)의 조사 방법에 따라 본인이 구성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행해졌다. 본 질문지는 친구들의 지지적 관계(supportive relationships)를 재기 위한 공유 활동,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신의, 애착/자존심 고양, 정보(information)의 6가지 하위변인 각각에 대해 5문항씩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6가

지의 하위 변인은 Berndt가 구분한 공유 활동(play/association),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친밀감(intimacy), 신의(loyalty), 애착/자존심 고양(attachment/self-esteem enhancement), 갈등(conflicts)의 6변인 중 '갈등'이 빠지고 '정보'의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유 반응식의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이 '정보'를 친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호 작용의 주된 요인으로 꼽은 데 기인한 것이다.

본 측정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보기 위한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친구(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에 대한 평정의  $\alpha$  계수는 .67에서 .84까지로 나타났는데, 공유 활동에 대해 .67, 친사회적 행동은 .80, 친밀감은 .84, 신의는 .86, 애착에 대해서는 .81, 정보에 대해서는 .84로 나타났다.

지인(그냥 같은 반에 속한 학생으로 '친구'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평정의  $\alpha$  계수는 친구에 대한 것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는데, 공유 활동은 .89, 친사회적 행동은 .85, 친밀감은 .85, 신의는 .86, 애착은 .90, 정보는 .85로 .85-.90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문항들이 '지지적 관계'라는 한 요인으로 집약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주 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한 결과, 친구, 지인 각각에 대해 모두 한 요인에 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실시

질문지의 실시는 학급별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하도록 했으며,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와 "그냥 같은 반에 속한 학생"을 따로 생각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약자로 써놓고 각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두 유형의 친구 선정은 동성 친구(same sex) 중에서 하도록 했다. 질문은 30개씩으로 두 유형의 친구(친구, 지인) 각각에 대해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질문은 각자 적어 놓은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들로서 각 친구에 대한 평정은 그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없을 것이다(아니오)”에서 “아주 자주 있을 것이다(아주 자주)”까지의 5단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채점 방법 및 자료 처리

채점은 “아니오”를 0점, “아주 가끔”을 1점, “가끔”을 2점, “자주”를 3점, “아주 자주”를 4점으로 하여 친구와 지인을 따로 구분하여 각 하위 범주별 평균을 구하였다(6개 각 하위 범주별로 0-20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자료 처리는 변량분석과 보충적인 자료로 t-검

증을 하였다. 친구 유형, 성별, 학년별에 따른 지각된 지지에서의 차이는  $3 \times 2 \times 2$ (학년 $\times$ 성 $\times$ 친구 유형)의 요인 변량 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는데, 학년별, 성별 요인은 집단간 요인 (between subject factor) 이고, 친구 유형은 반복 측정 (repeated measure) 되었으며 지지적 관계에 대한 평균 평정과 6개 하위 변인 각각에 대한 평균 평정이 종속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t-검증은 학년별 친구유형에 대한 평정의 차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결 과

#### 하위 변인별 친구 관계 평정

<표 2> 성별, 학년별에 따른 친구와 지인에 대한 평균 평정(1)

			지지적 관계							
			공유활동	친사회적행동	친밀감	신의	애착	정보		
친구	남	국3	2.45 (.95)*	1.91 (1.06)	2.33 (1.13)	2.40 (1.00)	2.53 (1.09)	2.35 (1.19)		
		국6	3.09 (.65)	2.70 (.92)	2.86 (.99)	2.96 (.81)	3.18 (.76)	3.05 (.78)		
		중3	2.81 (.93)	2.62 (.88)	3.24 (.83)	3.02 (.73)	3.21 (.85)	3.13 (.74)		
	여	국3	3.04 (.82)	2.87 (.88)	3.00 (1.04)	2.97 (.82)	3.21 (.85)	3.18 (.98)		
		국6	3.29 (.79)	2.74 (.94)	3.39 (.77)	3.24 (.62)	3.48 (.76)	3.27 (.77)		
		중3	3.06 (.63)	2.81 (.80)	3.55 (.49)	3.30 (.56)	3.59 (.52)	3.35 (.84)		
		지인	남	국3	1.92 (1.07)	1.60 (1.09)	1.85 (1.18)	1.92 (1.13)	2.08 (1.05)	2.12 (1.14)
				국6	1.12 (.94)	1.01 (.09)	1.00 (1.03)	1.17 (1.03)	1.61 (1.15)	1.35 (1.01)
				중3	1.94 (.89)	1.72 (.94)	1.98 (1.15)	1.96 (1.08)	2.51 (1.05)	2.05 (1.13)
여	국3		1.90 (1.08)	1.86 (1.20)	1.93 (1.16)	1.67 (1.11)	2.15 (1.23)	2.23 (1.05)		
	국6		1.24 (1.10)	1.09 (.99)	1.17 (1.25)	1.04 (1.21)	1.47 (1.34)	1.33 (1.31)		
	중3		2.13 (.99)	2.08 (1.02)	2.23 (1.06)	2.14 (1.07)	2.85 (.98)	2.40 (1.04)		

\*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성별, 학년별에 따른 친구와 지인에 대한 평균 평정을 지지 관계의 6개 하위 변인별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따라 6개 하위 변인들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일 변량 분석을 하였는데, 친구 유형(친구와 지인)에 따른 평정은 공유활동( $F(1,253)=312.04, p<.001$ ),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F(1,253)=172.54, p<.001$ ), 신의, 애착/자존심 고양( $F(1,253)=304.11, p<.001$ ), 정보( $F(1,253)=222.89, p<.001$ )로 6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p<.001$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6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학년의 주효과와 친구 유형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년의 주효과는, 공유활동( $F(2,253)=3.61, p<.05$ ),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F(2,253)=6.83, p<.01$ ), 신의, 애착/자존심 고양( $F(2,253)=10.04, p<.01$ ), 정보( $F(2,253)=9.05, p<.001$ ) 등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유형과 학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공유활동( $F(2,253)=30.89, p<.001$ ), 친사회적 행동( $F(2,253)=18.16, p<.001$ ), 친밀감( $F(2,253)=12.445, p<.001$ ), 신의, 애착/자존심 고양( $F(2,253)=20.68, p<.001$ ), 정보( $F(2,253)=21.45, p<.001$ )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반응에서는 공유활동( $F(1,253)=6.06, p<.05$ ), 친사회적 행동, 친밀감( $F(1,253)=8.87, p<.01$ ), 정보( $F(1,253)=4.84, p<.05$ ) 등의 하위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과 친구 유형과의 상호작용은 신의, 애착/자존심 고양( $F(1,253)=8.13, p<.01$ ), 정보( $F(1,253)=6.66, p<.05$ ) 등 세 변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 지각된 지지에 대한 친구 유형별 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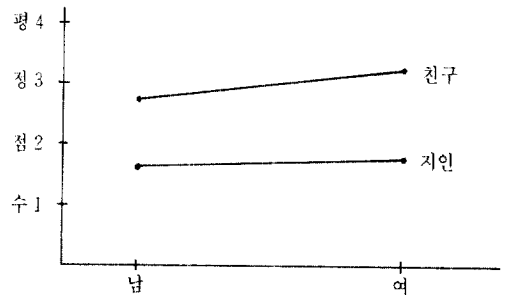
지지적 관계를 재는 6개의 하위 변인들은 요인분석 결과, 한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6개의 하위 변인들의 평균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변량 분석하였다. 변량분석의 근거가 된 친구와 지인에 대한 평균 평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성별, 학년별에 따른 친구와 지인에 대한 평균 평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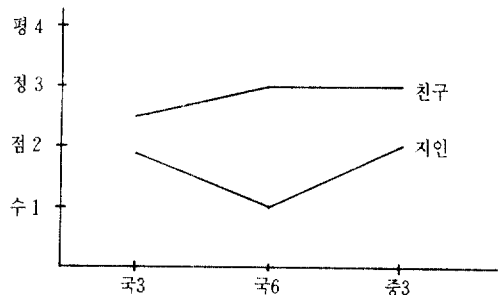
		친구	지인
남	국3	2.33(.89)*	1.91(.93)
	국6	2.97(.67)	1.21(.90)
	중3	3.01(.65)	2.06(.83)
여	국3	3.05(.74)	1.93(1.04)
	국6	3.24(.69)	1.22(1.12)
	중3	3.28(.42)	2.32(.79)

\*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변량분석 결과, 성별( $F(1,253)=9.46, p<.01$ ), 학년별( $F(2,253)=13.01, p<.001$ ), 친구 유형에 따른 주효과( $F(1,253)=342.08, p<.001$ )가 의미있으며, 친구와 학년간의 상호작용( $F(2,253)=30.42, p<.001$ )이 강하게 나타나고 친구와 성 사이의 상호작용( $F(1,253)=6.42, p<.05$ )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친구와 지인간의 구분을 보다 분명히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그림 1), 국민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보다 국민학교 6학년에서 더욱 분명한 친구 구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



〈그림 1〉 지각된 지지에 대한 친구 유형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그림 2〉 지각된 지지에 대한 친구 유형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

## 학년별 친구 관계에 대한 평정

한편 친구 유형에 따른 주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연구 대상이 된 3개 학년 모두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 보충적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학년별 친구 유형에 대한 t-검증

	친 구		사 인		t
	M	SD	M	SD	
국3	2.68	.89	1.92	.98	5.39***
국6	3.10	.69	1.22	1.00	14.83***
중3	3.11	.58	2.16	.82	8.46***

\*  $p < .001$

표 4에 따르면 국민학교 3학년( $t=5.39$   $p < .001$ ), 6학년( $t=14.83$   $p < .001$ ), 중학교 3학년( $t=8.46$   $p < .001$ ) 등 연구대상이 된 3개 학년 모두에서 친구와 지인간의 평정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그들의 실제 친구로부터 얼마나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지인 관계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 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6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친구 유형에 따른 평정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Masters와 Furman(1981), 그리고 Doyle 등(1980)의 행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 결과나, 그밖에 우정 관계 개념에 대한 많은 연구들(Furman & Bierman, 1984; Berndt & Perry, 1986; 고진경, 1987; 박희숙, 198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들은 그들의 실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가설적인 친구 관계 기대와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6개 하위 변인 모두에서 학년의 주효과와, 친구 유형과 학년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상호작용 효과는 국민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아동들에 비해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에서 친구와 지인 사이의 구분을 더욱 뚜렷이 하는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국민학교 2, 4, 6, 8학년을 대상으로 한 Berndt와 Perry(1986)의 연구나, 2, 4, 6학년을 대상으로 한 Furman과 Bierman(1984) 그리고 고진경(1987)의 선행 연구들에서 모두 학년의 증가에 따라 친구와 지인간에 점차 증가된 분화를 나타낸다는 결과들과는 비교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즉 국민학교 6학년에서 더욱 뚜렷한 구분을 나타낸다는 것은 H.S.Sullivan(1953)의 대인 관계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시기는 Sullivan의 구분에 의하면 청소년 이전기(preadolescence)에 해당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특히 친밀감의 욕구가 높아서 동성과의 단짝친구(chum)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다른 어느 시기 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충적인 t-검증에 의하면, 대상이 된 3개 학년 모두에서 친구와 지인간의 구분을 뚜렷이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Furman과 Bierman의 결과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지만, 고진경의 결과와는 비교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Furman과 Bierman은 친구와 지인에 대한 기대간의 구별은 모든 연령의 어린이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반면, 고진경의 결과에서는 친구 유형에 따른 구분은 2, 4학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6학년에서도 10개 특성 중 단지 5개 특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성에 따른 주효과는 친사회적 행동과 친밀감의 경우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으며, 공유 활동과 정보의 경우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체로 여학생들의 평정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과 친구 유형간의 상호작용은 신의와 애착 두 변인에서  $p < .01$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변인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있어 친구와 지인간의 구분을 뚜렷이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했는데, 본 연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비록 자유 반응식의 예비조사를 통해 다양한 견해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문항의 질문지를 통해 반응을 제한시켰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개방형의 문항과 폐쇄형의 문항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인 친구 관계의 연구에서 벗어나 실제 친구 관계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가설적 친구 관계와 실제 친구 관계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가설적 친구 관계와 실제 친구 관계를 묻는 질문을 동질적인 피험자 집단에 하여 두 관계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여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본 연구에서는 대개의 선행 연구들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친구 유형의 구분을 보다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의 경우 오히려 그 이후 단계의 아동들보다 더욱 뚜렷한 구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내재하는 기제에 대해 본 연구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피험자 연령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그 내용을 규명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본 연구의 피험자 집단은 서울에 위치한 국민학교, 중학교 각 1개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표집이 제한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 참고문헌

고진경(1987). 아동의 우정 관계 개념 발달. 중대 석사학위논문.  
박희숙(1985). 6, 7세 아동의 친구 관계 개념 발달에 관한 일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이주옥(1984). 학령기 아동의 우정 관계 개념에 관

한 연구. 연대 석사학위논문.

Allen, V.L.(ed.)(1976). *Children as tutors*. NY:Academic Press.  
Berndt, T.J. & Perry, T.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Bigelow, B.J.(1977). Children's friendship expectations: A cognitive-developmental study. *Child Development*, 48, 246-253.  
Bigelow, B.J. & La Gaipa, J.J.(1975). Children's written descri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1(6), 857-858.  
Broadhead, W.E., Kaplan, B.H., James, S.A., Wagner, E.H., Schoenbach, V.J., Grimson, R., Heyden, S., Tibblin, G. & Gehibach, S.H.(1983). The epidemiologic evidence for a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17, 521-537.  
Cabral, G., Volpe, J., Youniss, J. & Gellert, B.(1977). Resolving a problem in friendship and oth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nuscript,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owen, E.L., Pederson, A., Babijian, H., Izzo, L.D. & Trost, M.A.(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3), 438-446.  
Doyle, A., Connolly, J. & Rivest, L.(1980). The effect of playmate familiarity on the social interac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217-223.  
Foot, H.C., Chapman, A.J. & Smith J.R.(1977). Friendship and social responsiveness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35, 401-411.
- Furman, W.(1977). Friendship selections and individual peer interactions. A new approach to sociometric research. Pap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Furman, W. & Bierman, K.L.(1984). Children's conceptions of friendship: A multi-dimensional study of developmental chang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925-931.
- Garnezy, N. & Rutter, M.(eds.)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Y : McGraw-Hill.
- Ginsberg, D., Gottman, J. & Parker, J.(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J.M.Gottman & J.G.Parker(eds.), *Conversations of friends*(pp.3-4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5(3), 709-718.
- Hartup, W.W., Glazer, J.A. & Charlesworth, R.(1967). Peer reinforcement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38 (4), 1017-1024.
- Hartup, W.W. & Lougee, M.D.(1975). Peers as models. *School Psychology Digest*, 4(1), 11-26.
- Heller, K. & Swindle, R.W.(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D.Felner, L.A.Jason, J.N.Moritsugu & S.S.Farber(eds.), *Preventive Psychology*(pp. 87-103), NY : Pergamon.
- Keasey, C.B.(1971). Social participation as a factor in the moral development of pre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2), 216-220.
- Kessler, R.C., Price, R.H. & Wortman, C.B.(1985).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531-572.
- Leavy, R.L.(198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order : A review.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3-21.
- Lewis, M., Young, G., Brooks, J. & Michalson, L.(1975). The beginning of friendship. In M.Lewis & L.A.Rosenblum(eds.), *Friendship and peer relations*. NY : Wiley.
- Masters, J.C. & Furman, W.(1981). Popularity, individual friendship selections, and specific peer intera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44-350.
- Mitchell, R.E., Billings, A.G. & Moos, R.H.(1982).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aradigm.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 77-98.
- Newcomb, A.F. & Brady, J.E.(1982). Mutuality in boy's friendship relations. *Child Development*, 53, 392-395.
- Newcomb, A.F., Brady, J.E. & Hartup, W.W.(1979). Friendship and incentive condition as determinants of children's task-oriented 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878-881.
- Perry, D.G. & Bussey, K.(1984).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Reisman, J.M. & Shorr, S.I.(1978). Friendship claims and expectation among children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49, 913-916.
- Roff, M., Sells, S.B. & Golden, M.M.(1972). So-



- cial adjust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Children*. 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harabany, R., Gershoni, R. & Hofman, J.E.(1981). Girlfriend, boyfriend: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00-808.
-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 Norton.
- Turner, R.J.(1983). Direct, in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associated conditions. In H.B.Kaplan(ed), *Psychosocial stress*(pp.105-155). NY:Academic Press.
- Wahler, R.G.(1967). Child-child interactions in five field settings:some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2), 278-293.
- Youniss, J.(1978). A rel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friendships. In W.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vol.1), San Francisco : Jossey-Bass.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89, Vol. 2, No. 1, 69~77

## The Research of Perceptions in Friendships — focusing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aik, HwaJeo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perceptions of supportive relationships of their own friendships. Subjects of this reserch are those of 3rd and 6t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and 3rd graders of middle school total of 259 boys and girls.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made following the method of Berndt & Perry(1986)'s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questionnaire is supportive relationships, which consists of 6 subvariables such as play/association, prosocial behavior, intimacy, loyalty, attachment/self-esteem enhancement, and information. The data are analyzed by  $3 \times 2 \times 2$ (grade  $\times$  sex  $\times$  friendship) ANOVA and t-test as supplementary method. The results are : (a)Ratings of friend and acquainta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hree grades. This result suggests that children perceive their actual friendship as supportive one just as their conceptual friendship expectations ; (b)Each 6 subvariables shows a strong main effect of grade and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friendship and grade. This interaction effect came from 6th graders. differentiations between friend and acquaintance is more apparent than other's. This result has not been shown in previous researches, so more studies have to be done ; (c)Variables such as play/association, prosocial behavior, intimacy, and information showed main effect of sex. Girls' rating is higher than boys' is the reason of this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friendship and sex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loyalty and attachment. Girls' differentiation between friend and acquaintance is more apparent than boys' is the reason of this result.